LAW SCHOOL

상

2026 VOL.58



04
스페셜 인터뷰

"교육 통한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의 본질 지켜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현수 이사장

08
오늘의 법조인

정교화 변호사의 유연한 질주
"AI 시대일수록 '휴먼 터치'가 무기"

LKC ADR
정교화 변호사

16
로펌탐방

"AI시대, 질문하고 소통하는
변호사가 경쟁력"

법무법인 YK

LAW SCHOOL 창

발행일 2026년 10월 **발행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발행인** 김현수 **편집인** 이탁건 **편집·진행** 홍보팀(박소희, 여세린)
등록번호 2289-0262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1길 34, 5층(02-752-2037) **디자인** ㈜그리고나무(02-2268-2592) **인쇄** ㈜빅북프렌즈

2026 / VOL.58

CONTENTS













사람의 창

4 **스페셜 인터뷰**
김현수 제1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8 **오늘의 법조인**
정교화 변호사(LKC ADR)

12 **재학생 인터뷰**
로스쿨학생협의회 의장 & 부의장

16 **로펌탐방**
법무법인 YK

현장의 창

22 **기획 리포트**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26 **경연대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32 **로스쿨 뉴스**

34 **협의회 뉴스**

생각의 창

36 **필드노트**
윤종훈 변호사(GS건설)
최경이 변호사(최경이 법률사무소)

40 **로스쿨 생활기록**
공모전 대상 수상작 _ 곽진경(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제처 실무수습 후기 _ 권재현(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야구대회 참가후기 _ 김유찬(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8 **전문가 칼럼**
최이문 교수(경찰대학교)

50 **별별 이야기**
법조인 유튜버 top 10

52 **건강한 로스쿨**
추은혜 변호사(법률사무소 더든든)

54 **우리 집 막둥이**
김준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6 **대외 활동**

57 **새로 나온 책**

일상의 창



<로스쿨 창>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akls.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쿨 창>에 게재되는 칼럼, 인터뷰 내용 등은
본지의 편집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SN 2289-0262

본 매거진의 모든 내용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 반드시 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를 명시해야 합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CC BY 4.0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3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현수 이사장은 지난 10월 11일 임기를 시작하며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끌 협의회 앞에는 변호사시험의 정상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김 신임 이사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과제, AI 시대 법학교육의 방향, 향후 협의회 운영 구상을 들어봤다.

스페셜 인터뷰 _ 인터뷰. 박소희

“교육 통한 법조인 양성, 법학전문대학원의 본질 지켜야”

김현수 제13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Q.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선출 소감과 함께 앞으로 협의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먼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평가와 입학제도,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협의회가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다른 여건과 입장을 조정하면서 공동의 해법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우리 법조인 양성과 법학교육에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A. 가장 큰 성과는 법조인 양성의 중심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률지식뿐 아니라 실무능력과 윤리의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전공과 경력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계에 진입하면서 법조인의 구성과 전문성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아울러 특별전형과 장학제도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다른 학생들에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법조인 양성 과정의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을 높여 온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Q. 반면, 현재 시점에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A. 몇 가지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학생들이 시험 준비와 함께 다양한 교과목과 실무교육, 진로 탐색에도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격자 결정이나 시험제도에 관한 논의에서도 실제 법학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경험과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둘째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마다 규모와 교육목표, 지역적 여건과 특성화 분야 등이 서로 다릅니다. 평가의 기본적인 기준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대학의 특성과 다양한 교육적 노력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회원교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전문법률과목을 포함한 법학교육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선택과목별 응시 편차나 수강인원 감소 등으로 일부 전문과목의 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시험제

도와 교육과정의 관계를 함께 살피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법률 분야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제도 역시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임신·출산, 중대한 질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기관의 입장만으로 해결하기보다 충분한 자료와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사장님께서는 역대 이사장 가운데 두 번째 지역 로스쿨 원장 출신이십니다. 지역 로스쿨이 특히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추진하고 싶은 방안이 있으신가요?

A. 지역 로스쿨의 문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법학교육과 지역 법률서비스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충원, 재정과 교원 확보, 지역인재의 수도권 이동 등 여러 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결원보충제도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교육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결원보충제도는 학생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일정 비율 내에서 차년도 입학생 정원을 확대하는 제도인데, 특히 지역이나 소규모 법학전문대학원에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정원 축소가 학내 분위기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회원교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 선발제도도 선발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법률가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인재의 진학과 취업 현황, 지역 법률서비스 수요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협의회가 지역과 수도권을 구분하여 접근하기보다 각 대학이 처한 서로 다른 여건을 이해하고, 모든 회원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로스쿨이 본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고 실무·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학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A.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취지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준비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교육과정 전체를 좌우하게 되면 특성화 교육이나 전문법률과목, 실무수습, 리걸클리닉, 공익활동과 같은 다양한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변호사시험이 서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과목별 응시 편차가 커지고 일부 전문과목의 교육 기반이 약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법률과목 교육을 활성화하면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나 특정 시험방식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어떤 법률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라는 큰 틀에서 교육과 시험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협의회도 구체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원보충제도 등 당면한 과제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다양한 법조 진로의 확대와 같은 중장기 과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Q.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법조계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법조인의 역할과 법조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로스쿨 교육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A. AI의 발전으로 법률정보 조사, 판례와 법령의 분석, 법문서 작성 등 법률가의 업무 방식은 이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AI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보다 AI가 제시한 결과의 정확성과 한계를 판단하고, 이를 법률적 맥락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법률가의 기본적인 역할을 줄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찾아내는 능력,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능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역할은 오히려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AI를 법률정보 조사나 판례·법령 분석, 법문서 작성 등에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동시에, 그 결과를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비밀유지, 편향과 오류, 법률가의 책임 등 AI 활용에 수반되는 윤리적·법적 문제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대학마다 교육 여건과 특성화 분야가 다른 만큼 획일적인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좋은 교육 사례와 자료를 공유하고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신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협의회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마지막으로 이사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로스쿨 현안 가운데 특히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고 싶은 과제와 임기를 마칠 때 어떤 변화를 남기고 싶으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결정하기 전에 회원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여건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서 처음부터 하나의 의견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협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하면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임기 초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조인 양성제도, 제4주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결원보충제도 등 당면한 과제에 충실히 대응하겠습니다. 동시에 AI와 디지털 전환에 따른 법학교육의 변화, 다양한 법조 진로의 확대와 같은 중장기 과제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법무부와 교육부, 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법조계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계는 결국 좋은 법률가를 양성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정교화 변호사의 유연한 질주
“AI 시대일수록 ‘휴먼 터치’가 무기”

법률 조사와 서면 작성까지 AI가 빠르게 파고드는 시대,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판사에서 출발해 김앤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를 거친 정교화 변호사는 그 답을 ‘신뢰’와 ‘휴먼 터치’에서 찾는다. 정 변호사가 말하는 법조인의 역할과 커리어, 그리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을 법조인의 가치에 대해 들었다.



정교화
변호사

LKC ADR

Q.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을 꿈꾸셨나요. 고려대 법대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을 꿈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은행 주재원으로 근무해 초등학교시절 일부와 고등학교를 영국에서 생활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오히려 국내 예술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진로를 고민할 무렵에는 문과 계열이면서도 꾸준히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여성이 결혼이나 출산 이후에도 계속 일을 이어가는 모습이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런던에서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서 법대 진학을 권하시며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 한국 변호사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고려대 법대에 진학했습니다.

Q. 법대 진학 후에는 자연스럽게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된 건가요.

A. 법대 진학 전에는 법이 조금 고리타분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웃음). 하지만 막상 공부해보니 법이 생각보다 재미있었고, 법을 통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성으로서 꾸준히 경력을 이어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법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고려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다행히 사법시험도 2~3년 정도 준비한 끝에 합격했습니다.

Q. 사법시험 합격 후 여러 진로 가운데 법관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당시 진로는 대체로 법원, 검찰, 변호사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고 지금과 달리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성적에 진로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법원,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성적이 됐고 로펌이나 검찰에서도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과분할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었지만, 당시에는 어려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선택지 가운데 법원은 당시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선택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나와 한자나 한국식 교육에 부족함이 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IMF 시절이라 로펌에서는 해외투자나 구조조정 관련 업무가 많았는데, 로펌에 가면 번역 업무를 주로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법리를 제대로 배우고 선배 법관들에게도 배울 수 있으니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법적 분쟁이 최종적으로 다뤄지는 곳인 만큼,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법원을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Q.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약 16년간 근무하며 주로 국제중재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국제중재 분야만의 매력은 무엇이었나요.

A.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는 국제중재를 비롯해 다국적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건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어느 한쪽 국가의 법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국제중재를 활용합니다. 이 밖에도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거나,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정부 조사를 받는 경우처럼 컴플라이언스 · 정부 조사 · 내부 조사와 관련한 국제 업무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업무가 흥미로웠던 건 문화와 언어, 배경이 서로 다른 회사나 정부 사이의 분쟁을 조율하고 해결해가는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해외에서 생활하며 자연스럽게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경험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입장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접점을 찾아 하나의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Q. 로펌에서 오랜 기간 경력을 쌓은 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변호사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데 두려움은 없었나요.

A. 김앤장에서 일하면서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 등 외국법조인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분들은 한 곳에만 머무르기보다 여러 조직과 직책을 거치며 자신의 경력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국제중재 업무가 재미있었고 김앤장도 좋은 직장이었기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또 당시에는 지금처럼 AI가 중심 화두는 아니었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혁명’에 대한 관심이 한창 높아지던 때였는데요. 제가 해온 분쟁 업무는 늘 문제가 생긴 뒤 이를 해결하는, 말하자면 ‘사고 처리반’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앞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로 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국제중재도 15년 정도 했으니 충분히 경험했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웃음). 새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제가 쌓아온 경험이나 인적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그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경험을 해보자는 마음으로 옮겼습니다. 실제로 이직 후에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Q. 어떤 점에서 새로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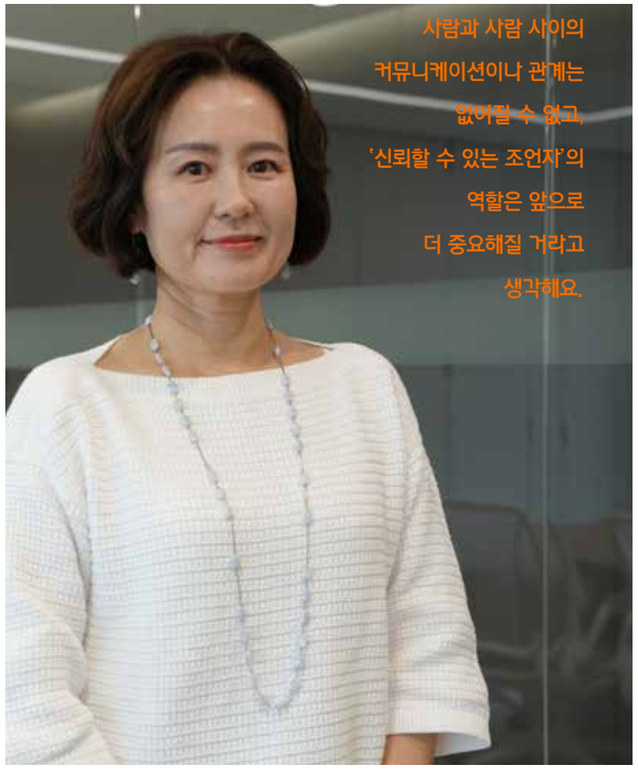
A.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펌에서는 주로 법무나 분쟁과 관련된 분들을 만났는데, 회사에 들어오니 마케팅이나 사업부문 등 다양한 부서의 국내외 사람들과 일하게 됐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 훌륭한 여성 리더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 여성 인재들이 더 활발하게 일하고 있었고, 일과 삶의 균형이나 여성 인재를 대하는 문화도 상대적으로 유연했습니다. 그런 여성 리더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또 글로벌 기업인 만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배경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주제가 완전히 달라졌고, 새롭게 배워야 할 기술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 모든 변화가 무척 흥미롭고 새로웠습니다.

Q. 이후 넷플릭스에서 정책 · 법무 업무를 총괄하셨습니다. 넷플릭스로 자리를 옮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A.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웃음).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디지털 혁명이나 클라우드, AI 같은 정책적 사안을 주로 다뤘던 반면, 당시 넷플릭스는 한국에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현안과 큰 분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분쟁 업무를 다시 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 끌렸던 것은 넷플릭스의 독특한 조직문화였습니다. 특히 '탤런트 덴시티'(Talent Density), 즉 뛰어난 인재들을 모아 조직 내 인재 밀도를 높이면 불필요한 규칙을 줄일 수 있다는 철학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경비나 휴가도 스스로 판단하고, 공식적인 평가 대신 서로 꾸준히 의견(feedback)을 주고받는 방식이었죠. 실제로 한번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넷플릭스에서 5년을 보내며 10년 치 경험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Q. 전통적인 법률 업무와 달리 글로벌 기술·콘텐츠 기업의 변호사에게는 어떤 역할과 역량이 요구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를 정말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재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할 뿐 아니라 산업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이라면 국내 경쟁 상황뿐 아니라 미국이나 세계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중 무엇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 봐야 합니다. 결국 사업과 산업 전반의 흐름에 관심이 많아야 하는 거죠.
또 자신이 속한 회사의 사업을 좋아하면 훨씬 좋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제품이 사회에 어떤 가치를 주는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회사의 방향이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평생직장의 개념은 아니더라도 그곳에 있는 동안 '이 회사가 하는 일이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느낄 수 있다면 훨씬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으니까요.



Q. 다양한 조직과 역할을 경험하며 생각하게 된 '법조인'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A. 저는 'trusted advisor', 즉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변호사는 누군가가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옆에서 잘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신뢰할 수 있고, 그 조언에 무게가 실리는 법조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정한 것만큼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변호사는 '안은 선비 같고, 겉은 상인 같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고고한 척하며 이익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종사하더라도 공익을 생각하고 의뢰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려 할 때는 용기 있게 아니라고 조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조언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법조 3륜'이라고 해서 법조계를 판사·검사·변호사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변호사 자격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이고, 그 자격으로 무엇을 할지는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판검사나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회사를 차리거나 다른 분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전통적인 법조인의 틀이나 권위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라는 명사보다 '신뢰를 주며 돕는 사람', '분쟁 해결을 돕는 조력자'처럼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Q. AI의 발전으로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시나요.

A.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웃음). 다만 변화하는 건 확실하고, 그렇다고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면을 쓰고 판례를 찾고 조사 · 분석하는 많은 지적 노동은 AI가 상당 부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판례를 많이 알고 외우는 것이 강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경쟁력이 되기 어렵겠죠. 대신 AI와 기술을 잘 활용해 경험과 판단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돕고, 어떤 조언을 하며 문제를 해결할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역할은 조금 더 사람을 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나 관계는 없어질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지금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역할도 생겨날 것입니다. 과거 사법연수원 정원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었을 때도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느냐"는 걱정이 있었지만, 이후 인하우스를 비롯해 새로운 직역이 많이 생겼으니까요. AI 시대에는 오히려 소통이나 관계 맺기 같은 '휴먼 터치'의 영역이 역설적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Q. 앞으로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얼마 전 LKC ADR(엘케이씨 법률사무소)을 창업하여 중재인·조정인·독립이사로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을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소송이나 중재보다 조정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지만, 아직 충분히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다시 분쟁 해결 분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웃음).
외국계 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법무팀이 작거나 없는 외국계 기업을 자문하는 일도 해보고 싶고, 사외이사 활동도 이어가고 싶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김앤장,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처럼 큰 조직에서 주로 일해왔는데, 이제는 조금 작게 시작해 제 방식대로 일해보고 싶습니다. 중재와 조정을 중심축으로 두고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Q.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제 경력을 보고 "어떻게 좋은 곳만 다녔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이름이나 브랜드만 보고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무엇에 끌리는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우고 싶은지, 성장 가능성과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어디에 가면 이걸 채울 수 있을까, 어디에서 재미있게 성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회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만의 경력이 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조인의 평판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이익보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으면 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책임을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격의 무게와 사회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법이나 판례, 실무는 계속 바뀌고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살 것인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만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36대 로스쿨학생협의회
“합격률 숫자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이 먼저”

의　장 _ 한정욱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부의장 _ 박민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기)

로스쿨학생협의회는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로스쿨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을 위해 원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은다.
치열한 수험과 학업 속에서도 전국 6,000명 원우의 대표자로 봉사하며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제36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 한정욱 의장과 박민수 부의장을 만났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장단점, 그리고 이번 집행부의 핵심 지향점까지 제36대 의장단이 전하는 이야기를 담아봤다.


(좌측부터) 부의장 박민수, 의장 한정욱

Q. 로스쿨 창 독자들에게 반갑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2학기 제36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로스쿨 17기 한정욱, 부의장 강원대학교 로스쿨 18기 박민수입니다.

Q. 전국 25개 로스쿨 원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제36대 법학협을 소개해 주세요.

A. 법학협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관련 제도나 학내 · 외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원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합하고,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목소리를 내는 대표 기구입니다.

Q. 이번 집행부는 어떻게 구성됐으며,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A. 법학협은 사무국, 총무국, 인사국, 자치행사국, 서기 등 총 5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장들이 각 국의 국장을 맡아 봉사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학기에 이어 연임하는 분들도 있고, 남다른 열정으로 자발적 지원을 하거나 업무 역량에 따른 추천을 통해 구성됩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희의 구성 목적이 원우들의 뜻을 모으는 것인 만큼, 어떠한 사안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모적인 분쟁이 아닌 ‘협의와 해결’로 나아가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이번 임기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활동은 무엇인가요?

A. 법학협에서 지속해 온 핵심 과제들을 추진합니다.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선택과목 제도 개선 활동과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변호사시험 기간 중 원우들의 ‘변시 도시락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Q. 현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전국 로스쿨 원우들의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요?

A. 변호사시험 합격률 저하에 따른 스트레스, 그리고 졸업 후 현실로 마주하게 되는 취업 문제가 시급한 현안입니다. 학생 신분일 때는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변호사시험 제도 개선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회에 나가 현실로 맞닥뜨릴 때 발생하는 불안감과 피해를 이제 막 로스쿨을 졸업한 신입 변호사들이 그대로 안게 되는 구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Q. 변호사시험 경향과 합격률에 대한 원우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A.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대한 원우들의 관심과 그에 따른 부담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변호사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시험’이라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로스쿨에 입학해 3년 동안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도 변호사시험이라는 마지막 관문에서 응시자의 절반 수준만 합격하는 현실은 극심한 불안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응시자 수는 매년 증가하는데 합격자 수가 이에 비례해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우들이 체감하는 경쟁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는 법조 인력의 적정 수급이나 자격 검증 평가 기능 등 여러 고려사항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에서 3년간 교육받은 학생들이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합격률 숫자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 교육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평가 목적이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충실하게 교육받고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학협은 이러한 원우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로스쿨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현 로스쿨 제도의 장점과 개선점은 무엇인가요?

A. 로스쿨 제도의 장점은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로스쿨에서는 학부 전공, 사회 경험,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이유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성이 법조계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 제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과 수험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점입니다. 본래 로스쿨은 단순히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기관을 넘어 실무능력과 법적 사고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학생 입장에서는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변호사시험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시험 준비에만 상당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로스쿨의 본래 교육 목적과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험 부담을 덜고, 법조인이 갖춰야 할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Q. 전국 규모의 학생단체를 이끌며 느끼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A. 치열한 학업을 병행해야 하는 전국 단위의 단체이다 보니 각 학교 대표가 모여 긴밀히 논의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각 학교 회장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있지만, 학업이라는 본업과 단체의 업무를 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현안 해결에 조금이라도 직접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보람입니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 넓은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로스쿨의 본래 교육 목적과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수험 부담을 덜고, 법조인이 갖춰야 할 실무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Q. 바쁜 로스쿨 생활 중에서도 법학협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로스쿨생으로서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이야기하고, 바꿀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교육 환경, 학생 복지 등에서 보이는 개선점을 개인의 불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국 로스쿨 원우들이 함께 고민하고 목소리를 낸다면 실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 로스쿨 원우들을 대표하는 법학협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여러 학교 학생회장들과 소통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자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책임감과 기대가 법학협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Q. 향후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미래의 포부를 그려주세요.

A. 법조인은 단순히 법률지식으로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가진 법률적 역량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활용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법학협 활동을 통한 공동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경험은 앞으로 나아갈 법조인이라는 길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한 뒤,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나갈 계획입니다.

Q. 마지막으로 함께 치열한 수험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로스쿨 원우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계실 모든 원우분께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로스쿨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이 맞는지 불안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는 순간도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이라는 목표를 앞두고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결과를 걱정하는 순간이 수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에서의 생활을 지금까지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합니다.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노력해 온 것은 분명하며, 그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학협 역시 모든 원우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필요한 부분을 위해 계속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힘든 과정의 끝에서 지금의 노력을 웃으며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라며, 전국의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원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YK
“AI 시대, 질문하고 소통하는 변호사가 경쟁력”

전국 31개 사무소와 310여 명의 변호사를 둔 법무법인 YK는 ‘원팀 원펌’ 체계 아래 전국 단위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YK가 신입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역량과 채용 방식, 지역 인재의 성장 경로 그리고 AI 시대 변호사의 경쟁력은 무엇일까. 채용을 담당하는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법무법인 YK



인터뷰이.
조인선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YK



인터뷰어.
서혁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Q. YK는 전국 31개 사무소를 ‘원팀 원펌’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무소를 하나의 로펌처럼 연결하기 위해 사건 수행과 교육, 채용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A. YK는 법률사무소로 출발했고, 분사무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강남 주사무소를 포함해 전국 31개 사무소가 있고, 약 310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습니다. 고문단 등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500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31개 사무소가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룹장과 분사무소장들이 화상회의를 열고, 개별 사건 역시 필요할 때마다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함께 논의합니다. 분사무소가 맡은 사건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필요하면 주사무소의 해당 전문그룹이 곧바로 회의에 참여합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처럼 사건 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준과 교육 자료도 전국 사무소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YK가 말하는 ‘원팀 원펌’은 단순히 같은 이름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사와 사건 수행, 교육 체계를 함께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채용도 주사무소가 일괄해 진행하되, 각 분사무소에 필요한 인재상을 파악해 해당 분사무소장과 함께 지원자를 살핍니다. 조직과 사건 정보가 중앙에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어느 사무소에서 경력을 시작하더라도 YK 전체의 전문성과 자원 안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Q. 이러한 조직을 함께 만들어갈 변호사를 선발할 때 YK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질은 무엇인가요. YK의 채용 철학과 인재상을 설명해 주세요.

A. 적극성, 사회성, 소통능력을 지닌 인재를 영입하고 있습니다. 송무든 자문이든 끈기 있게 사안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판례를 깊이 분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아가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자서 법리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팀과 함께 수행하고, 사실관계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의뢰인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시에 팀 안에서 서로 다른 전문성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YK는 이런 과정을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Q. 적극성, 사회성, 소통능력이라는 표현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를 성격상의 장점이 아니라 실제 사건 수행에서 나타나는 업무 역량으로 설명한다면 각각 어떤 모습인가요?

A.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 지점을 궁금해하고, 의뢰인이 하고 싶었지만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 오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호기심을 질문으로 바꾸고, 그 질문에서 더 큰 쟁점을 발견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인재입니다.

사회성과 소통능력 역시 단순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건과 사업에 관해서는 변호사보다 훨씬 많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지식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팀 안에서는 서로 다른 전문성을 연결해야 합니다. 결국 세 가지 역량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사람과 충분히 소통해 사실을 더 깊이 파악하고, 그 사실을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가 명절 직전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정된 일정은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야 하는 순간 손을 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현장에 도착해서도 한 번 더 질문합니다. 원청을 대리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하청 관계자의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직접 만나고, 상황에 따라 유족과 회사의 소통 과정에도 참여합니다. 작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살펴보고 기록에 남아 있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합니다.

그 차이가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류 더미를 정확히 읽는 능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에서 멈추면 이미 정리된 쟁점만 보게 됩니다. 적극적인 변호사는 현장으로 가서 하나라도 더 묻고 배우며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YK가 신입 변호사에게도 적극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1년 차 변호사를 오랫동안 기록 뒤에만 두기보다, 이른 시기부터 사건의 한 축을 맡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일은 단순히 근무지를 지방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기업과 향토산업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곳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렇게 쌓인 전문성이 다시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왼쪽)와 서혁진 서울대 로스쿨 원우(오른쪽)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Q. 서류와 면접 평가만으로 지원자를 충분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YK는 서류와 AI 기반 테스트, 여러 차례의 면접을 통해 지원자를 어떻게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나요.

A. 먼저 서류에서는 지원자가 지금까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활동해 왔는지를 봅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 경험 하나를 떼어 점수화하기보다, 지원 동기와 그동안의 경험이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핍니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약 1시간의 AI 기반 테스트를 거칩니다. 짧은 면접만으로는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성향을 함께 파악하고, 입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후 다수의 면접위원이 참여하는 면접과 강경훈 대표변호사의 최종 면접이 이어집니다. 정량적인 요소는 서류전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면접 단계에서는 기존 조직과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동료와 의뢰인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YK에서 실제로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여러 면접위원이 함께 평가함으로써 특정 면접위원 한 사람의 인상에 정성평가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로스쿨 3년 동안 기본법과 변호사시험 과목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빠듯해 관심 분야를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아직 완성된 전문성을 증명하기 어려운 신입 지원자가 자신의 관심과 잠재력을 보여주려면 무엇을 탐구하고, 그 과정을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어떻게 드러내야 할까요.

A. 전문성은 특정 과목을 많이 수강했다고 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의 조문만 공부하는 데서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AI 규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공공기관의 개편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국제 규제와 산업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주제라도 면접 전까지 충분히 리서치하면서 자신만의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변호사는 IoT 기업의 규제개혁 업무를 연구하면서 조선왕조실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가 논쟁하고 합의하는 모습에는 닮은 점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얼핏 멀어 보이는 분야를 연결해 새로운 실마리를 찾아가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입 지원자에게 완성된 전문가의 지식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궁금해했고, 그 궁금증을 어디까지 따라가 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만들어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Q. YK가 전국 분사무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면 지역을 이해하고 그곳에서 오래 성장할 인재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역 연고와 산업에 대한 이해가 사건 수행에서 어떤 경쟁력이 되는지, YK가 지역 로스쿨과 실무수습을 운영하고 이를 실제 채용과 성장 경로로 연결하는 방식까지 설명해 주세요.

A. 지역에서 성장한 변호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과 기업, 생활문화를 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식만으로 단기간에 얻기 어려운 자산입니다.
순천분사무소의 최학수 변호사는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자신의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순천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으로 YK에 합류했습니다. 순천과 여수, 광양 일대의 산업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을 만나거나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YK가 지역 로스쿨과의 연계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전분사무소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연계해 인턴십을 운영하는 등 각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만 실무수습이 열린다면 지역 학생들은 짧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거주와 이동에 추가적인 부담을 져야 합니다. 지역 사무소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은 전국에 로스쿨을 설치한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인재를 등용하는 일은 단순히 근무지를 지방으로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 기업과 향토산업을 잘 아는 변호사가 그곳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그렇게 쌓인 전문성이 다시 지역의 법률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드는 일입니다.

Q. 지역에서 일하고 싶은 지원자라도 '분사무소가 별도로 채용하는지', 반대로 '조직의 수요에 따라 희망하지 않은 지역으로 배치되는지'를 걱정할 수 있습니다. 신입 변호사 채용과 근무지 결정은 어느 단위에서 이뤄지며, 지원자의 희망 업무·지역 연고와 각 사무소의 수요가 서로 다를 때 무엇을 우선해 판단하나요.

A. YK는 창립 이래 본사가 신입 변호사 채용을 일괄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결정을 본사만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원자는 채용 과정에서 희망 업무와 근무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재하고, 해당 그룹장과 분사무소장이 면접에 함께 참여합니다. 본사 근무를 1순위로 선택하면서 지역 사무소를 2순위나 3순위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1순위로 지원했던 그룹이 아니라 함께 지원한 분사무소에서 역량과 조직의 수요가 더 잘 맞아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의 의사입니다. 회사의 필요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보내기보다 지원자의 지역 연고와 희망 분야, 성장 가능성, 각 조직의 수요를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야 배치가 단순히 자리를 채우는 문제가 아니라 한 변호사의 경력을 설계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Q. 지역 사무소에서 경력을 시작하면 전국 단위 사건이나 특정 전문그룹의 업무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YK의 원팀 원펌 체계 안에서 지역 근무 변호사는 주사무소 전문그룹과 어떻게 협업하고, 향후 근무지나 보직을 바꾸며 자신의 경력 지도를 넓힐 수 있나요.

A. 지역 근무와 전문 분야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전국 사무소가 동일한 사건관리와 협업 체계 안에 있고, 내부 세미나와 업무 매뉴얼 역시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사건을 수행하면서 주사무소 전문그룹과 함께 일할 수도 있고, 반대로 주사무소에서 경험을 쌓은 뒤 지역 사무소의 수석변호사나 소장 등의 보직에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분사무소에서 주사무소 전문그룹으로 이동한 사례가 있고, 주사무소에서 좋은 성과를 내던 변호사가 자신의 경험을 더 크게 펼치기 위해 지역 사무소의 보직에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배치된 장소가 경력의 경계를 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YK 안에서는 본인의 의지와 전문성에 따라 근무지와 역할을 바꾸고 자신의 경력 지도를 넓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팀 원펌의 인사 원칙입니다.

Q. YK는 올해 신입 변호사의 연봉을 공개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YK가 연봉 수준을 숫자로 먼저 공개한 결정에는 어떤 채용 철학과 조직 운영의 약속이 담겨 있나요.

A. 자신감이자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약속을 만들고, 약속했다면 지켜야 합니다. YK의 성장 역사는 과거를 자랑하기 위한 연혁이 아니라 앞으로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합류한 변호사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계획이어야 합니다.
인재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맡게 될 역할과 보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메시지가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외부에 공표한 만큼 그 방향을 실제 조직 운영에 반영하고,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Q. 생성형 AI는 이미 영문 계약서 번역, 판례 검색, 쟁점 정리와 초안 작성에 드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있습니다. 고객 역시 같은 도구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보를 빠르게 찾아 정리하는 능력만으로는 변호사의 가치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YK의 경험에 비춰볼 때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인간 변호사의 역할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나요?

A. 저 역시 실제 업무에서 영문 MOU 번역이나 1차 쟁점 검토에 내부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과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초벌 작업이 이제는 몇 분 안에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서 안에 숨어 있는 협상의 맥락이나 당사자 사이의 역학관계, 서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해법까지 번역 결과만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I는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례를 찾고 초안을 만들 수 있지만, 의뢰인이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사실까지 스스로 알아서 입력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만나 경험에서 나온 질문을 던지고, 필요하면 현장에 함께 가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과거 1년 차 때 처리했던 사건의 기억을 현재의 사안과 연결해 새로운 쟁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AI가 탐색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줄수록 변호사는 오히려 질문과 판단,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적극성과 사회성, 소통능력이 바로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로 참여한 서혁진 서울대 로스쿨 원우

Q. AI의 확산은 단순히 하나의 업무 도구가 추가되는 변화가 아니라, 로펌이 지식을 축적하고 사람을 교육하며 의뢰인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 전체를 다시 묻게 합니다. 끝으로 YK가 장기적으로 만들고 싶은 조직의 방향과 그 안에서 변호사가 성장하는 방식을 들려주세요.

A. YK는 고객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자체 AI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존 AI 시스템이 가진 장점 역시 경영진과 개발진이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고객과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속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YK가 만들고 싶은 로펌은 AI를 활용하면서도 법조와 사람을 지킬 수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조직입니다. 그 방주에는 자체 개발한 AI도 탑재되겠지만, 결국 종착점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선배 변호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은 업무 경험을 후배에게 더 빠르게 전달하고, 후배 변호사가 과거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그 경험을 흡수해 더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드는 것. 그것이 YK가 그리고 있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기획 리포트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2회 대한민국 법학교육자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심포지엄에서는 표준판례 연구를 통한 변호사시험 출제 개선 방안과 선택과목제 · 응시제한 제도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주제 1 표준판례 연구결과로 본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 개선방안

발제자

▶ **박수곤 교수**(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민사법 표준판례



- 표준판례 중심 교육은 판례 수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리를 형성 · 확립하거나 유의미하게 변경한 판례를 선별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 학습의 밀도를 높이는 데 있다.
- 로스쿨 수업은 결론 암기가 아닌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형성과정을 탐구하는 문답식 · 소크라테스식 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출제도 민법 문제는 표준판례를 원칙적 출제기준으로 삼고, 사실관계를 변형한 사례형 문제로 개편해 사고력을 평가해야 한다.
- 표준판례는 법무부 · 출제위원회가 공식 채택하지 않는 한 실제 출제범위로 기능한다는 보장이 없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홍영기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형법 · 형사소송법 표준판례



- 정답 시비 우려로 판례의 결론만 시험 지문에 넣기 시작하면서 법학교육 붕괴가 시작됐다. 수만 개 판례의 결론을 외우는 부담에서 벗어나 일정한 수의 판례를 깊이 읽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법학교육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 표준판례를 활용해 결론이 아닌 논증을 가르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표준판례 범위 내 출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학생들의 암기 부담이 실질적으로 줄고 법학 본연의 학습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 2차 개정 작업으로 형법 표준판례를 498개(2023년판)에서 430개로 68개(13.7%) 줄였다. 사실관계 변형 · 학설 결합 · 판례 응용 등 표준판례를 활용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 예시를 직접 개발해 제시했다.

▶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표준판례



- 변호사시험이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며 로스쿨 교육이 법 이론을 도외시하고 판례 암기 위주로 왜곡되어, 로스쿨 제도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 표준판례 체계화를 통해 학습의 명확한 범위를 제시하고, 변호사시험 출제와 표준판례의 실질적 연계를 통해 리걸마인드 중심의 교육을 회복해야 한다.
- 표준판례가 로스쿨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가치를 가지려면 이론과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기본 판례들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안 헌법 표준판례는 331개에서 501개로 늘었다. 법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강의와 출제에 사용될 리딩케이스 중심의 표준판례로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맞췄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롭게 반영했다.

토론자

▶ **서보국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육의 표준화를 위해 25개 로스쿨 전공교수와 각 학회의 표준판례 2026년 개정안의 열람, 수정의견 제시, 피드백 반영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의 출제기준에 표준판례 개정



안을 출제범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 이후, 법무부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가 이어져 교육과 시험의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

▶ **김두얼 교수**(명지대 경상 · 통계학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응시자 약 2,200명의 선택형 답안을 분석해, 시험 검사도구로서의 품질을 점검하고, 합격과 불합격 분류가 얼마나 정확한지 분석했다. 검사 신뢰도는 민사법(0.846)이 가장 높고 공법(0.634)이 가장 낮았으며, 공법은 40문항 중 12개가 변별 기준에 미달했다. 어떤 합격선을 적용하든 응시자의 21~59%가 측정오차 범위 안에 몰려 있어, 원점수 1점 차이로 과목당 61~206명의 당락이 바뀌었다. 인원수로 합격선을 정하는 현행 방식은 측정오차에 취약하므로 수준설정(standard setting) 절차 도입 등이 필요하다.

주제 2 변호사시험 새판짜기: 선택과목제와 응시제한 문제의 입법적 해결

발제자

▶ **이승준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선택법 과목의 새판짜기 -시험에서 교육으로-



- 국제거래법 · 환경법 · 국제법 이른바 선택법 '빅3'에 응시자의 80% 이상이 몰려 있다. 7개 선택법 과목 전임교수는 2012년 233명에서 2024년 191명으로 18% 줄었다. 미국은 선택과목이 없고, 독일은 중점과목(Schwerpunktbereich)을 통해 대학별 특성화와 절대평가를 결합하고 있다.
- 법학교육의 목적은 시험이 아닌 교육에 있어야 한다. 선택과목제도의 개선이 교육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학점이수제 도입, 객관적 학업 성취도 표준평가 지표 개발 등 로스쿨 내 전문과목 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한다.



▶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위헌성과 개선방안

- 일명 '오탈자'를 양산하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5년 내 5회 응시제한)에 대한 헌법소원은 2026년 기준 54번째 청구가 제기됐으나, 헌재는 10년 넘게 합헌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
- 응시제한자의 상근 · 정규직 비율은 50.2%로 합격자(77.2%)보다 현저히 낮고, 소득도 합격자의 절반 수준이다. 응시제한 제도가 학생들을 극한의 수험 중압감으로 몰아넣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 변호사시험법 제7조의 폐지 없이는 로스쿨 교육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임신 · 출산 · 중증질환 등 예외조항 확대, '5년' 기간제한 삭제 후 '5회' 횟수제한만 유지 등 방안을 제안한다.



토론자

▶ **공두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5년+5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 제도는 매년 200여 명의 응시제한자를 발생시키는 '블랙홀'이다. 경제적 어려움과 임신 · 출산 · 육아로 인한 학업 손실, 다른 경로의 탐색 가능성이 차단된 폐쇄적 구조 등 변호사시험 5회 연속 응시의 명암이 존재한다. 기간제한을 폐지하는 '봉쇄해제형' 구조로 전환해 불합격자도 '응시제한자'라는 사회적 낙인 없이 새로운 경력을 탐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박형식 과장**(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시험이 교육을 좌우하는 구조적 한계는 변호사시험뿐 아니라 수능 체제의 변천 과정에서도 반복돼 온 문제이다. 수능 체제의 변화를 참고한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선택과목 개편은 학교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해 법전원협의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응시제한자의 정신건강 문제에는 깊이 공감하며, 대학생 전반의 정신건강 위기가 로스쿨 학생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집중해야 한다.

▶ **이동근 과장**(법무부 법조인력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학점이수제 도입 등을 전제로 선택과목 시험에 절대평가제 도입을 권고했으며, 법무부도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응시제한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일괄적 연장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다만 임신·출산에 대한 예외 사유가 없는 현행 규정의 공백은 개선이 필요하다.

▶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선택과목 평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하며, 선택법 과목 이수와 전국단위 P/F 시험 병행이 합리적 대안이다. 응시제한 문제는 임신 · 출산 · 중증질환 예외 인정이 우선이지만, 형평성 문제를 피하려면 5년 기간제한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더 근본적이다. 법률 개정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 현장의 요구와 학계, 법조계, 정부 부처 간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 심포지엄 자료집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법조인들이 풀어낸 노란봉투법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원청과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부터 파업과 손해배상,
여기에 생산현장에 투입된 AI 로봇까지.
실제 우리 사회가 마주한 노동의 쟁점들이 모의법정에 올랐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예비법조인들은 개정된 노동법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본선 참가자 및 심사위원 단체사진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국내 유일의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이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총 32개 팀, 96명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8월 22일 연세대 광복관에서 열린 본선에서 최종 경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처음 열린 경연대회로, 개정 법률을 실제 분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특히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단체교섭, 쟁의행위, 노동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AI 로봇의 생산현장 투입이라는 새로운 쟁점까지 문제에 담겼다.

> *주식회사 삼닉전자는 경영권 등을 이유로 도급비 인상과 AI 로봇 도입을 결정했고,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손잡고 노동조합'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 삼닉전자에 고용보장 의제를 포함해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삼닉전자가 교섭을 거부하자, 노조는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에 돌입했고, 삼닉전자는 AI로봇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노조와 간부들을 상대로 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러분은 이 손해배상 사건의 원고 또는 피고를 소송 대리하게 될 변호사이다.*
>
> -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문제 중


(왼쪽부터) 문성덕 한국노총법률원 부원장, 김선수 전 대법관, 김수영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치열한 경연 끝에 이화여대 로스쿨팀(이지현·최윤민·김수향)이 국회의장상을 차지했다. 우수상인 고용노동부장관상은 서울대 로스쿨팀(윤정연 · 권윤아 · 김용훈)이 수상했다. 장려상은 동아대 · 이화여대 · 한국외대 로스쿨팀에, 노란봉투법상은 고려대 · 연세대 · 서울대 로스쿨팀에 각각 돌아갔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전 대법관은 "법의 제정은 출발에 불과하다"며 개정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어떻게 해석 ·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그 해석법 적용은 국제노동기구가 입법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임에도 예비법조인에게 노동법은 필수과목이 아니다"라며 "노동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해볼 수 있는 실전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제12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최우수상(국회의장상) 수상팀

이화여자대학교 로스쿨 최윤민 · 김수향 · 이지현

(우측부터) 국회의장상을 받은 이화여대 로스쿨팀 3인과 동 대회 민주노총 법률원장상 수상팀 2인



Q. 수상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A. 팀원 모두 1학년이고, 노동법과 서면 작성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함께 모여 열심히 여름방학을 보낸 결실을 얻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Q. 세 분이 함께 팀을 꾸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평소에도 노동법이나 노동 관련 현안에 관심이 있었나요?

A. 1학기에 형법총론을 함께 공부한 스터디원들끼리 자주 밥을 먹으면서 노동을 비롯한 공익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것을 계기로 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팀원들 모두 관련 현안들에 막연한 관심은 있었지만,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 법리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 참가를 계기로 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처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공부부터 시작했나요? 또 쟁점을 정리할 때는 주로 어떤 자료를 참고했나요?

A. 노동법 강의를 수강한 선배들로부터 교과서를 구해서 기초 개념을 익히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정법에 관한 논문도 찾아 읽으면서 학계의 논의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현안에 기반해 출제된 문제인 만큼 언론보도를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Q. 이번 문제에는 개정 노조법뿐 아니라 원 · 하청 교섭, AI 로봇의 대체 인력 투입, 손해배상 책임 등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많은 쟁점 가운데 핵심을 추려내고 논리를 구성할 때 어떤 점에 중점을 뒀나요?

A. 무엇보다 쟁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문제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읽으면서 쟁점이 될 만한 지점들을 모두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의 핵심 골자가 되는 사용자성, 교섭대상성,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 쟁점의 논거 구성이 관건이라고 판단하여, 법리의 면에서도, 사실관계 포섭의 면에서도 논증을 탄탄히 하고자 많은 분량과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Q. 특히 이번 대회는 개정법과 관련한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을 해석해야 했는데요. 기존 판례에 직접 기대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자료와 근거를 활용해 주장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나요?

A. 노동조합법 개정 후의 판례는 아니더라도, 문제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판례에 설시된 세부적인 논거들을 참조했습니다. 논문, 판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노동위원회 결정, 개정이유문 등을 종합하여 저희가 주장하는 해석 기준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 풍부하게 논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Q. 예선부터 본선까지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여러 차례 작성했을 텐데요. 좋은 서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또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많이 수정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분량이 한정적인 만큼 불필요한 설명을 걷어내고 밀도 있게 논리를 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서로가 쓴 부분을 바꾸어 읽어보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서술할 수 있도록 퇴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면 작성에 있어 법률문서의 형식에 오류가 없도록 노력했는데, 본 대회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준비서면을 주고받을 때는 상대 논리의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되, 너무 공격적으로 읽히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본선을 앞두고

Q. 본선에서는 한 팀이 원고와 피고 양측을 모두 대리해 변론해야 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입장을 모두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반대로 양측 논리를 모두 준비한 것이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나요?

A. 변론 과정에서 양측 논리를 모두 숙지해야 한다는 점, 짧은 시간에 원고 입장에서 피고 입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직접 구성한 논거에 대한 반박을 구성하면서 각 입장의 논리적 허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한 허점을 다시 보강해나가는 방식으로 양측의 논리 모두를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와 조문이더라도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르게 활용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Q. 자료 조사와 서면 작성, 변론 준비 과정에서 세 분은 역할을 어떻게 나눴나요? 또 팀 내에서 의견이 달랐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나요?

A. 모든 과정을 다 같이 모여서 함께했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즉시 서로 질문하면서 해결할 수 있어 오히려 효율적이었습니다. 서면은 파트를 나누어서 쓰되, 자료 조사와 개요를 구성하는 단계를 함께했고, 변론을 준비할 때는 재판부의 질문에 모든 팀원이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쓴 서면을 최대한 완벽하게 숙지하고자 했습니다. 서면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글인 만큼, 최대한 모든 팀원이 납득할 수 있는 글을 쓰려고 했습니다. 서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서면의 논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Q. 다음 대회 참가를 고민하고 있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 준비 과정에서 느낀 현실적인 팁을 전해주세요.

A. 아직 1학년이고 노동법 수업을 수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회 참가를 망설일 수 있지만, 오히려 1학년이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적극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토론하는 것이 서면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판부 질의응답 대비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밤을 새야 하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팀원의 생일을 축하하기도 했고, 서면 마감날에는 회식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긴 준비과정인 만큼, 팀원들과 추억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치열하되 즐겁게 대회에 임하길 추천드립니다.

<로스쿨 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로스쿨의 오늘을 기록하고, 내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로스쿨 창〉은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로스쿨에서의 배움과 경험, 법조인을 꿈꾸며 마주한 고민과 성장의 순간,
법학교육과 법조계에 대한 생각은 물론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면 어떤 주제든 좋습니다.
로스쿨 재학생과 교수님, 법조인 및 외부 필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원고 가운데 채택된 글은 〈로스쿨 창〉에 게재되며,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로스쿨 생활과 학업 이야기
- ➡ 진로와 법조 현장 경험
- ➡ 법학교육에 대한 제언
- ➡ 일과 삶, 문화에 관한 에세이 등

- 접수 기간 : 상시 접수
- 원고 분량 : 공백 포함 2,000자 이내
- 접수 방법 : 이메일 sh@akls.kr
- 문 의 : 02-752-2037



현장의 창

로스쿨 NEWS

news 01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성료

8월 20일~21일 이틀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7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가 개최됐다.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실질적인 입시 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진로 상담을 받기 위한 많은 수험생들이 전국 25개 로스쿨 상담 부스를 찾았다. 올해는 25개 로스쿨과 법조단체를 비롯해 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로펌공익네트워크 등 참여 기관이 총 31곳으로 확대되면서 수험생들의 진로 탐색을 위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news 02

제17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79.36%...전년보다 13%p 하락

8월 1일 치러진 제17회 법조윤리시험에 2,117명이 응시해 1,680명이 합격했다.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12.75%p 떨어진 79.36%를 기록했다. 제9회 시험부터 90%대를 유지하던 합격률은 제15회 시험에서 81.09%로 대폭 하락한 후,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해 92.11%를 기록하며 예년 수준을 회복했지만 다시 급락했다. 법조윤리시험은 변호사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각 로스쿨에서 법조윤리 과목을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실시된다. 합격 기준은 만점의 70% 이상으로, 선택형 40문항 가운데 28문항 이상 정답을 맞혀야 한다.



news 03

부산대 로스쿨 '부당시렁'팀,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대상 수상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8월 13일 개최한 '제11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대 로스쿨 '부당시렁'팀(강수영 · 김신영 · 이용재 · 이청수 · 정여진)이 대상을 수상했다.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조인들이 대표적인 국민 권익 보호 제도인 행정심판 심리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역대 최다 규모인 54개 팀이 참가해, 지난 6월부터 약 70일 동안 경연을 치렀다.



news 04



한양대 로스쿨 '오봉산'팀, 제24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 대상

8월 12일~13일 이틀간 진행된 '제24회 대학(원)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경연대회'에서 한양대 로스쿨 '오봉산'팀(김성근 · 김유찬 · 이다현 · 이수민 · 임승준)이 대상을 받았다. 역대 가장 많은 43개 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20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온라인 플랫폼·생성형 인공지능(AI) · 알고리즘 등 시의성 있는 주제로 경연을 펼쳤다. 참가팀들은 가상의 공정거래 사건을 구성하고 팀원들이 각각 심사관과 피심인 측으로 역할을 나눠 법리를 둘러싼 공방을 전개한다.

news 05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는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지식재산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8월 10일 열린 '제13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53개 팀의 치열한 법적 공방 결과, 상표 · 디자인 부문에서 이화여대 로스쿨팀(권나현 · 김규리 · 이다은)과 연세대 로스쿨팀(김지호 · 김태희 · 이시현)이,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시립대 로스쿨팀(이유정 · 이지민 · 최유찬)과 연세대 로스쿨팀(강현호 · 유시현 · 홍서희)이 각각 지식재산처장상과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협의회 NEWS

2026
VOL.58

제3회 로스쿨 ·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공모전 시상식



제3회 로스쿨 ·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8월 10일(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로스쿨 입학 준비생과 재학생에게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공모전은 로스쿨 입학 수기, 로스쿨 생활 수기, 변호사시험 합격 수기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로스쿨 교수, 변호사, 기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총 13개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3개 부문 전체 대상은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 운동 현장에서 로스쿨까지'를 작성한 곽진경 원우(전북대 로스쿨)가 수상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사법연수원 간담회



8월 19일(수) 사법연수원에서 '법실무교육 발전을 위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실무교육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과 지원 방안, 개선 사항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홍대식 협의회 이사장, 이탁건 사무국장을 비롯한 6명의 로스쿨 원장, 그리고 김시철 사법연수원장과 14명의 교수, 이인호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이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88차 총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9월 9일(수)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8차 총회를 열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법조인 선발 양성 개선 T/F ▲결원보충제도 ▲리걸클리닉 공익변호사 매칭 지원사업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과 표준판례 연계 방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심의 · 의결했다. 이어 진행된 협의회 이사장 선출을 통해 김현수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이사장 선임



김현수 원장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신임 임원 선임 이사



이석우 원장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원장 취임

(학교 가나다순)



송영민 원장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지만 원장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상민 원장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생각의 상

필드 노트

AI 시대, 변호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얼마 전 딸아이의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돌상에는 청진기와 마이크, 명주실과 엽전처럼 저마다 아이의 앞날을 축복하는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자신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마음도 그 위에 함께 올려 두었습니다. 돌잡이가 시작되자 온 가족의 시선이 아이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물건들을 한참 살피더니 청진기를 집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사가 되려나 보다" 하는 말과 함께 박수가 터졌습니다.

청진기가 아니라 엽전이나 명주실을 잡았어도 모두 기뻐했을 겁니다. 돌잔치는 직업의 우열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의 가능성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니까요. 그런데 만약 딸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겠냐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사람이 해온 일을 AI가 빠르게 대신하고 있는 요즘 세상에 어떤 직업을 권하는 게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침 돌잔치를 치르고 몇 주 지나지 않아 한 고등학교에서 진로 특강을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의 저라면 무엇이 궁금했을까 생각하며 로스쿨 생활과 변호사시험, 변호사의 일과와 주요 업무, 일을 하며 느낀 보람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준비해 간 이야기보다 질문을 던지던 학생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쁜 사람도 변호하시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AI가 발전하면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 미리 받아 둔 질문도 있었고, 강의를 듣다가 학생들이 손을 들고 물어본 것도 있었습니다. 한때 돌상 앞에 앉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기 미래를 구체적으로 궁리할 나이가 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준비해 간 강의는 어느새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게 좋았습니다. 진로 강의는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 함께 궁금해하는 자리니까요. 그중에서도 "AI가 발전하면 변호사는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에는 선뜻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 답을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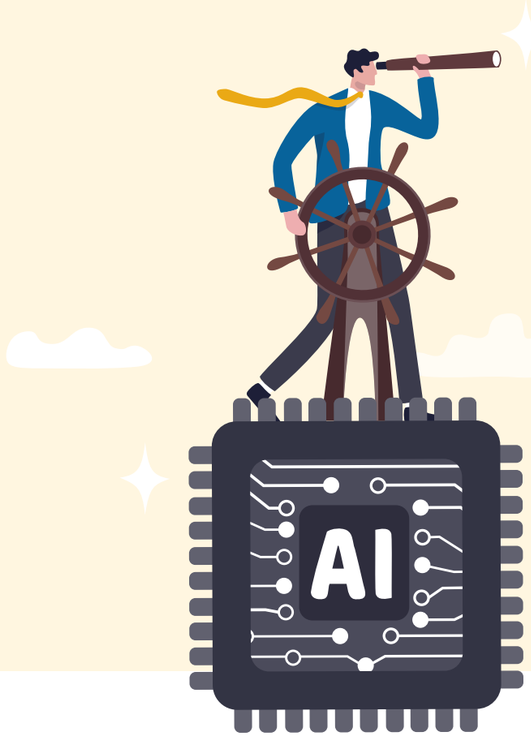
완성된 답을 내놓는 대신, 저는 변호사가 된 뒤 어떤 일을 하며 보람을 느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변호사가 된 뒤 어떤 일을 좋아하게 되었는지는 훨씬 또렷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저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말 사이에 빠진 사실을 묻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리하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계약을 체결해도 될까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처럼 당장 마음에 걸리는 일부터 묻곤 합니다. 그 말 뒤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더 묻고, 가능한 선택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설명했습니다. 굳어 있던 의뢰인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고, 해결책이 하나둘 보일 때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 안의 질문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AI가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보다 'AI로 인해 변호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달라질까'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법률산업박람회에서 본 풍경도 그랬습니다. AI는 판례와 법령을 찾고, 자료를 요약하고, 계약서를 검토하고, 문서 초안을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같은 행사에서 열린 로스쿨 AI 챌린지는 AI 활용 능력과 법적 추론 능력을 함께 살폈습니다. AI가 변호사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변호사가 AI와 일하는 방식이 이미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산더미 같은 기록을 뒤지는 게 일상인 변호사에게, 판례를 찾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무척 반가운 일입니다. 그렇게 절약한 시간을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듣고, 생각을 다듬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쓰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에게는 또 다른 답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법정에서 변론하는 일에, 누군가는 계약과 제도를 설계하거나 조직의 의사결정을 돕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을 겁니다. 같은 변호사라도 어떤 문제에 귀 기울이는지,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을지는 저마다 다릅니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자신이 어떤 일을 즐겁게 해왔고, 어디에서 의미와 책임을 느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그 일을 어떻게 더 잘해 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각자의 답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는 학생들에게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라고 권하지도, AI 때문에 피해야 할 직업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문제에 마음이 가는지, 기꺼이 붙들고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직업을 서둘러 정하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할 때 즐겁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지 알아가는 편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더 든든한 기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며칠 뒤, 돌잔치 사진을 다시 넘겨보다가 청진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를 상징하는 물건으로만 보였던 청진기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청진기는 진단에 앞서 가만히 소리를 듣는 도구입니다. 변호사의 일도 답을 서둘러 내놓기보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는 데서 시작합니다. 잘 들어야 무엇을 더 물어야 할지 알 수 있고, 충분히 묻고 난 뒤에라야 비로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AI가 변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어디까지 바꿀지는 알 수 없습니다. AI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계속 늘어나더라도 무엇에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떤 역할을 기꺼이 맡을지 정하는 것은 결국 각자의 몫일 겁니다. 언젠가 딸아이가 "나는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라고 묻는다면 직업 하나를 골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어떤 일이라면 오래 해보고 싶은지 함께 고민해 줄 생각입니다. AI 시대에도 더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저도 같은 질문을 계속 품고 일하겠습니다.



윤종훈 변호사

글 쓰고 말하는 사람.
현대자동차 인사팀과
SK텔레콤 마케팅팀을 거쳐
GS건설 법무팀에서 일한다.
일상 속 법률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전하며, 저서로는
<언제나 나를 지키는 법>이 있다.

필드 노트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건너며 배운 것들

- 학생이자 엄마였던 로스쿨 생활

최경이 변호사

현) 최경이 법률사무소
전) 주식회사 코오롱
전) 법무법인 혜명

학생이면서 엄마였던 시간

로스쿨 1학년 내내 임신한 상태로 학교에 다녔고, 그해 겨울방학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 후 복학하면서 학생이면서 엄마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고, 시험을 앞두고도 육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학점 하나, 시험 한 번이 마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잘해야 하고, 뒤처지면 안 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학교와 집을 오가다 보니, 처음에는 육아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동기들에게 육아의 고단함을 꺼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출산 후 달라진 몸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이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수업만 서둘러 듣고는 집으로 돌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앞만 보고 달릴 수 없었던 이유

어쩌면 저는 학생이면서 동시에 엄마였기 때문에, 남들처럼 앞만 보고 달릴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때의 '멈춤'이 제게 다른 풍경을 보게 해주었습니다.

학점은 중요했고, 변호사시험 역시 반드시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바깥의 삶도 존재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시험이 있어도 아이에게 밥을 먹여야 했고, 책상 앞에 앉아 있다가도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시험을 잘 봐야 한다는 마음은 여전했고,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삶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건너며

돌이켜보면 제가 로스쿨 생활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공부가 잘되는 날에는 공부했고, 잘되지 않는 날에는 잘되지 않는 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떤 날은 꽤 잘 해냈고, 어떤 날은 겨우 하루를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수험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루라도 공부를 덜 하면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모든 순간을 잘 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되는 날과 무너지는 날이 섞여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도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마음 아닐까요. 그렇게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건너다보니 어느새 그 긴 시간의 끝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혼자 잘 해내지 않아도 되는 것

고군분투하던 그 시절, 저는 사람에게 기대는 일에 서툴렀습니다. 각자의 짐으로 바쁜 친구들에게 제 이야기까지 보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타인이 건네는 작은 다정함이 긴 수험생활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대학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친구는 제가 기억조차 못 했던 순간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네가 내 별 재미없는 농담에도 잘 웃어줬던 게 생각나. 그때 참 고마웠어." 그 말을 듣고 꽤 놀랐습니다. 친구의 말에 웃었을 뿐인데,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마음을 덥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버티게 하는 것은 거창한 도움이 아니라 이런 작은 다정함인지도 모르겠다고.

로스쿨 동기들과의 관계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흔쾌히 제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을지도요. 모든 고민을 털어놓을 필요도,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공부하는 동기에게 밥 한 끼 같이 먹자고 말하고, 힘든 날에는 힘들다고 솔직해지는 것. 누군가 건네는 위로를 미안해하지 않고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긴 수험생활의 귀퉁이에 따뜻한 볕이 들 수 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지금, 돌아보면 시간은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건너면서. 때로는 혼자, 때로는 누군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긴 시간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건넨 작은 다정함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막막했던 터널을 지나오며 배웠습니다.

오늘도 불안 속에서 하루를 견뎌내고 있을 누군가에게, 이 글이 작은 전화 한 통처럼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고, 오늘 하루를 잘 보내지 못했더라도 괜찮다고.
그저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건너면 된다고.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
운동 현장에서 로스쿨까지



곽진경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1.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를 생각하며

2019년, 제 나이 스물일곱의 가을이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저에게는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아빠가 산업재해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500kg이 넘는 거대한 구조물에 깔려 돌아가신 아빠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뼈가 하나도 남지 않은 형겊 인형처럼 무력했습니다.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대 중반의 장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사고 후처리는 비정할 만큼 차갑고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가족 중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이 저는 경찰서와 현장을 오가야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 오는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사고 책임이 있는 수급업체와 하수급업체 사장들을 만나 날 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 복잡한 산재 절차를 묻고, 회사 측 변호사를 상대하는 일도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그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 노무사님과 활동가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금방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빠를 보낸 지 고작 열흘 만에 민형사 합의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회사 측 변호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 잘 끝났으니, 사장님과 웃으면서 악수나 한 번 하시죠." 그 말은 저의 심장을 찢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빠는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차가운 영안실에 누워 계시는데, 무엇이 잘 끝났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웃으라는 것인지 기가 찼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 무심하고 상투적인 한마디만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보다, 별 뜻 없이 던지던 위로보다도, 그 법률대리인의 태도가 더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치열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품위와 예의란 무엇인가.' 법은 차가운 조문의 나열이 아니라, 분쟁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삶을 어루만지는 예의여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찾기 위해, 저는 10대 시절부터 오랜 꿈이었던 사회운동을 그만두고 법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2. 실패의 쓴맛과 노무사라는 새로운 시작

로스쿨 진학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학부 시절, 저는 사회운동에 뜻을 두었던 터라 학점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고학년이 되어서야 성적이 조금 올랐고 장학금을 받기도 했지만, 누적된 성적은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타고난 머리가 좋지 않다고 자책하며 공부했던 LEET 점수 또한 기대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로스쿨 입시 실패는 저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하루빨리 노무사가 되는 것만이 무뚝뚝했던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갚을 유일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공인노무사 시험과 LEET 공부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LEET 시험은 7월, 노무사 시험은 8월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노무사 시험에 운이 좋게 빨리 합격했습니다. 국가로부터 아빠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니, 이제는 제가 자격을 갖추어 저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저의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 현장에서 배운 노동의 무게: 전문가의 시선과 진정성

노무사 직무개시 후, 저는 산재와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넘어, 아빠가 계셨던 그 거칠고 위험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산재 유족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들의 눈물을 마주할 때마다 제 노력이 그들의 상실감을 단 1%라도 채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낮없이 서면을 쓰고 증거를 모으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과로사 사건을 맡았을 때는 1,000면이 넘는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만들기도 했습니다. 근로시간을 알아내기 위해 1,000개가 넘는 녹음 파일을 하나하나 듣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안전 설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근로 시간이 기록되지 않은 사각지대에서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파헤치는 과정은 아빠를 잃은 제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회사의 입장에 서서 합의를 중재해야 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비록 사측 입장에 서 있더라도, 과거 제 기억 속에 상처로 남았던 그 변호사처럼 무례한 대리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족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그들의 고통에 예의를 갖추는 것, 그것이 제가 노무사로서 지키고자 했던 최소한의 품위였습니다. 한 의뢰인께서 제 서면을 읽고 "위로받는 느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비로소 법의 온기를 전하는 법률가에 한 걸음 다가갔음을 느꼈습니다.

4. 왜 변호사여야만 하는가: 조력의 한계와 새로운 갈망

법무법인에서의 경험이 쌓일수록, 저의 가슴 속에는 해소되지 않는 갈증이 생겼습니다. 노무사로서 할 수 있는 조력의 범위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을 많이 쏟았던 과로사 사건을 처리할 때 그 한계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통상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야 최소한의 객관적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38시간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을 때, 유족과 함께 준비했던 그 수많은 서면이 행정 단계에서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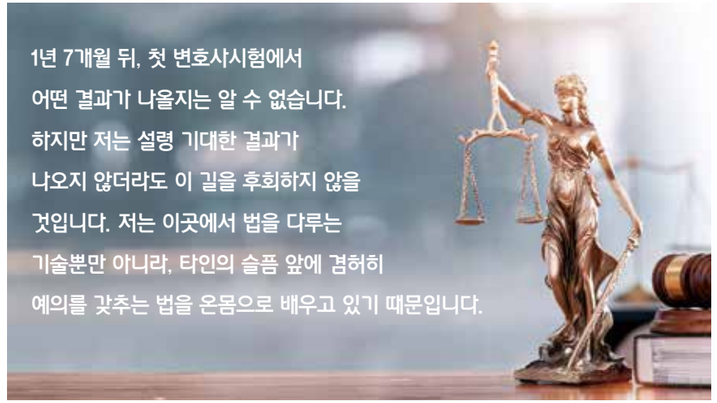
당시까지는 사실관계를 가장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저였지만, 사건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더 이상 의뢰인을 대리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무사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며 새로운 대리인과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였다면 직접 소송 절차를 수행하며 의뢰인의 처음과 끝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완전한 대리인이 되고 싶다는 열망. 그것이 제가 다시 로스쿨로 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5. 아빠가 열어주신 전북대학교 로스쿨의 문

다시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지만, 직장 생활과 병행하는 공부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1개년도 제대로 풀지 못한 채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낮은 학점과 LEET 점수는 저를 끊임없이 위축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 정보를 찾던 중,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전북대학교를 포함한 소수의 학교에서 '사회적 배려자 전형'으로 산재 유족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재 유족 특별전형'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에게는 국가와 사회가 건네는 위



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학점도, LEET 점수도 낮았지만 결국은 제가 가진 '진정성'과 '실무 경험'을 믿어준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합격하는 기적을 맞이했습니다.

법무법인 생활을 서둘러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오던 날,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아빠가 나를 도와줬네." 이 기회는 아빠가 저를 위해 보내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빠의 희생으로 얻게 된 이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노라,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법조인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전주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6.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 낮은 자세로 배우는 친구들의 힘

사회생활을 치열하게 겪고 서른 중반의 나이에 들어온 로스쿨은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방대한 공부량 앞에 저는 자주 작아졌습니다. 낮은 정량 점수로 합격했다는 사실은 때때로 저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기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겉돌기도 했습니다. 혹여나 제가 '어려운 언니'로 느껴질까 봐 먼저 다가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한 전략은 묵묵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았고, 1학년 때 기대보다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기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밤새 정리한 학습 자료들을 동기들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삭막한 수험 환경에서 저를 편견 없이 받아준 동기와 선후배들에 대한 저만의 감사 표시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성숙한 사고를 하는 동기들과 선배님들을 보며 과거의 제 편협함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동기들 사이에서 만난 살아온 경로가 비슷한 친구들도 든든한 마음속 아군이었습니다. 로스쿨은 저에게 법학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진짜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저에게 선뜻 다가와 준 동기들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로스쿨에 적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7. 글을 마무리하며

로스쿨생으로 지낼 수 있는 3년은 인생 전체에서 보면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목표에만 매몰되어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외면하고 싶지 않습니다. 동기들과 같이 변론대회에 나가 치열하게 논리를 세워보고, 사회법을 공부하며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노동법학회를 같이 하는 원우들을 포함한 좋은 선후배들과 밤새 철학을 나누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단단한 법조인으로 만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이 긴 수기를 통해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입니다. 그저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도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아빠가 계셨던 그 거친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어서, 아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에게 "나는 끝까지 당신 편입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1년 7개월 뒤, 첫 변호사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령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길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법을 다루는 기술뿐만 아니라, 타인의 슬픔 앞에 겸허히 예의를 갖추는 법을 온몸으로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누군가의 '잘 끝난' 합의 뒤에 숨겨진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에게 "웃으며 악수하라"고 말하는 대리인이 아니라, 의뢰인이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기다려주는 따뜻한 법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빠에게 못다 한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 믿습니다.

국가의 정책이 '법'이라는 그릇에 담기는 곳



권재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7기

학부생 시절 사회 곳곳의 다양한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더 나은 사회란 어떤 모습인지를 자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결국 '법령'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어 국가와 사회의 인프라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 법을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지난 7월, 2주간 다녀온 법제처 제34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은 그 '법령이 만들어지는 현장'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본 시간이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해석 합동 검토회의

I. 법제처를 택한 이유

실무수습만큼은 법이 만들어지는 현장에 가 보고 싶었습니다. 국회와 법제처 모두 관심있었는데, 국회가 법령 제정뿐 아니라 예산 · 국정감사 · 대정부 견제 등 폭넓은 활동을 하는 곳이라면, 법제처는 오직 법제 업무만을 전담하는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기관으로서 정부 부처가 만드는 모든 법령안을 심사하고, 정부 내 법령해석을 최종적으로 담당한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법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법제 업무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되고 싶어, 법제처 실무수습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법제처는 각 로스쿨에서 1~2명씩을 추천받아 수습생을 선발하는데, 이번 제34기에는 전국 열세 개 로스쿨에서 열다섯 명의 수습생이 모였습니다.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실무수습 교육장

II. 법제처 실무수습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수습은 법제처의 조직과 업무에 관한 강의를 듣고, 주어진 과제를 다음 날까지 보고서로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강의는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법령입안 · 심

사기준〉, 〈법령해석 방법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헌법과 법제〉 등 법제 업무의 뼈대를 훑는 내용이었고, 과제는 2주간 네 차례 주어졌는데 법령 심사와 자문, 법령해석을 모의 사례를 통해 실제로 진행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강의와 과제 외에는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와 자치법규 사전 검토회의를 참관했고, 로스쿨을 졸업한 선배 변호사님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2주차에는 충청남도 태안의 법제교육원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습니다.

강의는 조문을 훑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과 국가 시스템을 함께 보게 했습니다. 〈헌법과 법제〉 강의는 법제처에서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어떠한 신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지 엿볼 수 있는 소중한 강의였습니다. 'Constitution'이라는 말 그대로 헌법의 본질이 권리 선언이기 이전에 '국가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있고, 법제란 그 헌법 정신이 수천 개의 하위 법령에 제대로 구현되도록 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보이는 풍경도 다르다"는 말도 오래 남았습니다. 같은 조문이라도, 수많은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하는 일선 공무원은 법적 안정성을, 개별 분쟁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는 법원은 구체적 타당성을 먼저 본다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조차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전하게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헌법 전문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이라는 구절은 모든 제도를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하라는 의무라는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III. 형식이 곧 내용이 되는 자리

실무수습을 통틀어 가장 크게 남은 것은 '정책을 만드는 일'과 '정책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는 일'이 전혀 다른 작업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법제처의 일은 철저히 후자였습니다. 무엇을 법률에 담고 무엇을 대통령령 · 부령에 위임할지, 조문의 순서와 자구를 어떻게 배열할지를 한 자 한 자 따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준 것이 법제처가 매년 펴내는 『법령입안 · 심사기준』이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국회 자료보다 훨씬 두껍고 상세한, 사실상 입법의 교과서였습니다. 한 강의에서 "이 책을 보면 법제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열정으로 법을 다루는지 알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법제관님들이 조문 하나를 두고 나누는 대화의 밀도가 그러했습니다.



태안 현장학습 꽃지해수욕장



정부세종청사 수료식

법이라는 그릇의 모양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한 사람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최근 법제처가 힘을 쏟는 '경제형벌 합리화'는, 행정법상 의무를 어겼을 때 관행적으로 붙던 징역 · 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어 사업자가 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형벌 조항 한 줄을 손보는 일이 곧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이미 만들어진 법을 법전과 판례를 통해 '해석'하는 훈련만 받아 왔습니다. 법제처에서는 반대편, 곧 법을 '쓰는' 자리에서 조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조문이 어떤 고민과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알고 나니, 같은 조문을 봐도 느껴지는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IV. 마치며

2주가 끝날 무렵에는, 하나의 법령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다시 공포되는 법령으로 다듬어지기까지, 또 민원인이 질의한 사안에 유권해석 하나가 나가기까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분들의 치열하고 열정적인 토의와 노력이 쌓이는지를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여러 로스쿨에서 온 동기들과 함께 강의를 듣고, 점심마다 조를 이뤄 밥을 먹고, 태안의 바다를 본 시간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강의와 회의를 열어 주고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신 법제처 실무수습 교육담당 사무관님을 비롯하여 여러 실무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제 업무 및 공직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법제처에서 실무수습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다만 송무 중심의 진로가 확고하다면, 법제처의 업무가 그와는 결이 다르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교과서에 실리는 법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현장을 한 번쯤 직접 체험해 보시면 법 문언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뭇 달라지리라 확신합니다.

수험 생활 속 가장 뜨겁고 찬란한 쉼표



김유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8기

1. 대회 진행

안녕하십니까! 올해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 참가 후기를 작성하게 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18기 김유찬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로스쿨 야구동아리 레오네스(Leones) 소속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느꼈던 점을 생생히 남겨 보고자 합니다.

이번 로스쿨 야구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소속의 총 14개 야구팀이 참가했습니다. 3~4팀이 한 조가 되어 조별 예선을 진행하고, 각 조마다 상위 2팀이 모여서 8개 팀이 토너먼트를 진행해 우승팀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저희 팀은 이번에 경희대, 부산대, 충남대와 같은 팀에 배정되었습니다.

2-1. 대회 첫날(예선 조별 리그)


한양대의 부산대 상대 1차전 선발투수,
16기 김남현 선수

첫날에는 각 조의 예선전이 진행됐습니다. 한양대 로스쿨의 첫 상대는 부산대 로스쿨이었습니다. 부산대 로스쿨이 작년 우승팀이기도 하고, 올해에도 상당히 강한 전력을 보유했던 만큼, 철저한 훈련과 전략 하에 경기에 임했습니다.

옆의 사진은 한양대의 부산대 상대 1차전 선발투수, 16기 김남현 선수입니다! 한양대 로스쿨 야구부 창단에 큰 기여를 한 선배님임과 동시에, 투타 양면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는 한양대 로스쿨 최고의 에이스 선수입니다.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흔쾌히 시간을 내 대회에서 큰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양대가 선공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압도적인 타자력을 활용해, 상대의 우수한 투수분을 상대로도 많은 안타와 도루를 기록하여 1회부터 2점을 내며, 시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2회 말에, 상대 타선에게 적시타를 허용하며 2-3으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전을 향한 한 점의 싸움이 시작된 3회 초, 한양대 감독님은 대타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5번 타자에 대타, 감독 안창균입니다"

상대의 실책과 안타, 고의4구로 주자 만루인 상황에서, 감독님께서는 당당히 본인이 대타로 나서며, 반드시 적시타를 만들어 내리라 다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회 초에 2타점 역전 적시타를 만들어내며
역전에 성공한 한양대 로스쿨

감독님은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깔끔한 안타를 만들어냈고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님의 뜨거운 타격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5회 초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했던 상황, 감독님은 타석에서 좌측 담장 앞에 떨어지는 3루타를 만들어내며 도망가는 2타점 적시타를 완성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독님은 총득점이었던 7점 중 혼자 4타점을 만들어내며, 2타수 2안타라는 훌륭한 기록과 함께 완벽한 득점권 해결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감독님의 열정에 화답하여, 선발투수 김남현 선수님도 각성했습니다. 김남현 선수님의 5이닝 완투와 타자들의 활약에 힘입어 한양대 로스쿨은 첫 경기에서 짜릿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예선 탈락의 아쉬움을 안겼던 부산대를 상대로 1년 만에 설욕하며 토너먼트 진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다음 경기로 충남대 로스쿨과의 2차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잠깐 오고 그칠 줄 알았던 비는 그라운드에 물이 철렁거릴 정도로 흙을 적시기 시작하였고, 결국 심판은 우천으로 인해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며 경기 취소 후 추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경기라도 더 하고 싶었던 양팀에게는 아쉬운 소식이었지만, 막을 수 없는 하늘의 뜻이었기에 받아들이고 추첨을 진행했습니다. 충남대의 김세진 선수가 가위바위보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2차전은 충남대의 추첨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양대는 아쉽게도 추첨에서 패배하며, 1승 1패로 D조 2위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2-2. 대회 둘째날(본선 토너먼트)

둘째 날에는 출전한 8개 팀 간의 본선 토너먼트가 진행됐습니다. 한양대 로스쿨은 8강에서 고려대 로스쿨을 만났습니다. 한양대의 고려대 상대 선발투수는 '장승혁 선수'였습니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선수 중 한 명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선발투수에게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장승혁 선수는 한양대 로스쿨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선발투수로 뛰신다는 점이 다른 로스쿨에는 없는 한양대 로스쿨만의 독보적인 특징입니다. 학교에선 저희의 스승님, 마운드에선 든든한 선발투수인 교수님께서는 한양대 로스쿨 야구부 창단 이후 팀을 위해 개인레슨까지 받으실 정도로 야구에 진심이십니다!

고려대를 상대로, 한양대는 초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1회부터 안타를 퍼부으며 무려 16점이라는 압도적인 득점을 만들어냈고, 대량 득점 지원과 함께 교수님은 1회 말 마운드에 올라오셨습니다. 학생이 아니라 교수님이라고 해서 상대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양대 로스쿨 야구부의 자랑스러운 선발투수, 장승혁 교수님께서는 1회부터 단 2실점만으로 상대를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에 화답하듯 타자들은 2회에도 6점을 득점하며 교수님의 어깨를 한결 가볍게 해 드렸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상대 선발투수셨던
장승혁 교수님과 최기찬 선수님 배터리의 모습

고려대전을 기분 좋게 승리하고, 바로 다음 경기인 4강, 경북대와의 경기가 진행됐습니다. 경북대는 8강에서 성균관대에 승리하고 올라온 강팀이었기 때문에, 더욱 비장하게 준비했습니다. 선발투수로는 부산대전에서 완투승을 기록했던 김남현 선수가 한번 더 등판했습니다.



경북대전을 앞두고 파이팅을 다지는 부원들의 모습



2026년 제15회 전국 로스쿨 야구대회 공동 3위를 차지한 한양대학교 로스쿨 야구동아리 레오네스

경북대의 상위타선은 예상한 대로 강력했습니다. 5회 초, 1점 차이를 막고 다음 공격에서 역전의 점수를 기대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안타와 볼넷을 허용하며 오히려 점수 차이가 더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 팀의 투수는 첫 아웃카운트를 잡아냈고, 마지막 타자 두 명을 2연속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양대의 우승을 향한 여정은 아쉽게도 4강에서 멈췄지만, 부원들은 모두 내년을 기약하며 서로를 다독여주고, 서로 수고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했지만, 소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입학하고 처음 야구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부원들, 학부에서부터 야구를 열심히 배워서 새로 야구를 시작한 부원들에게 널리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부원들, 공에 맞아도 전혀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출루하여 적극적인 주루플레이를 보여주었던 철인 선수들, 하루에 수십, 수백 번씩 스윙 연습을 하며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갈아 넣었던 최고의 타자들, 어깨가 아파도 영점이 잡힐 때까지 투구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최고의 투수들.

변호사시험 대비로 한창 바쁠 시기인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인 보은까지 와주셔서 눈에 띄는 활약을 보여준 16기 선배님들, 개인레슨까지 받으시며 팀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신, 한양대 로스쿨 야구부의 영원한 지도교수님이며 이번 대회에서 완투승을 기록하신 선발투수 장승혁 교수님, 그리고 작전 야구가 무엇인지, 감독이 왜 중요한지, 중요한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타자가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똑똑히 알게 해 주었던 안창균 감독님까지. 우리 모두는 서로의 능력을 믿었고, 그런 믿음과 함께 모두가 함께 승리를 위해 앞으로 나아갔기에 3위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 마치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학전문대학원은 공부가 주된 일상이 되는 곳입니다. 처음 입학했을 때는 다들 학업에만 열중하느라 함께 야구를 즐길 친구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제 곁에는 야구에 대한 열정을 함께 나눌 소중한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판례와 법조문으로 빽빽하던 일상에 흙먼지 묻은 유니폼과 투박한 글러브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그라운드로 향했습니다. 매일 마주하던 강의실 책상을 벗어나 햇살 아래 서로의 이름과 포지션을 목 놓아 부르며 뛰었던 이번 야구대회는, 숨 가쁘게 달려가던 수험 생활 속 가장 뜨겁고 찬란한 쉼표였습니다.

야구는 아웃 카운트 세 개가 모두 채워지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는 스포츠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우리 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모든 로스쿨 야구인들이 깊이 공감하는 울림이라 생각합니다. 방대한 학업량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를 때도 있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다음 베이스를 향해 뛸 수 있는 까닭은 내 등 뒤에 언제든 공을 받아줄 동료들이 있다는 믿음 덕분입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함께 땀 흘리며 배운 연대감과 동료애는, 훗날 법조인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길고 고독한 레이스에서 서로를 지탱해 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팀원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 함께 뛰었던 전국의 모든 로스쿨 야구인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그라운드에서 마주할 날을 기약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법학에 사람을 이해하는 시선을 더하다

법심리학의 시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자문을 구해온 질문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였다. 몇몇 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와 관련된 해고 판단에 적용되는 증명 기준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서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ACLU는 이러한 기준 변경이 성희롱 피해자의 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에서, 나에게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물어왔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해 보인다. 증명 기준을 낮추면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과연 얼마나 약해질까? 그런데 이 질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은 과연 두 증명 기준의 차이를 실제 판단에서 구분하고 있을까? 법률가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일반인에게도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실제 판단에 반영되는 것일까?

법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증명 기준(standard of proof)의 차이는 익숙하다. 형사재판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증명(beyond a reasonable doubt)'과 민사재판에서 적용되는 '증거의 우위(preponderance of evidence)'는 서로 다른 기준이다. 하지만 법률가에게 명확한 구분이 일반인에게도 똑같이 명확한 것은 아니다. 여러 법심리학 연구는 사람들이 증명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제 판단에서 법률이 제시한 기준보다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은 배심원뿐 아니라 로스쿨 학생이나 법률가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다. 법률 용어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물론 사람들이 기준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준 변경의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실제 판단은 사건의 성격이나 판단자의 경험, 제시되는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 적힌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판단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쉽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증명 기준을 바꾸는 일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일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도구이면서, 사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하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는지는 판단의 편의나 정확성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고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에 관한 사회적 선택일 수 있다. 따라서 기준 변경의 효과를 평가할 때는 실제 사건의 결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당사자와 사회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신고자에게는 정부나 기업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조직의 신고 처리 방식이나 피해자가 신고를 고려하는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의 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법의 효과는 판단의 결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는지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험은 법학과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내가 얻은 배움을 잘 보여준다. 2013년 나는 미국에서 심리학 박사학위와 법학석사학위 이중 학위를 받았다. 법학을 공부하며 익힌 논리와 심리학에서 배운 연구방법론을 함께 활용하며, 법률가에게 익숙한 문제도 다른 관점에서 다시 질문할 수 있었다. 법률의 문구를 해석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법이 실제로 사람들의 판단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된 것이다. 반대로 심리학자들이 던지는 질문과 제시하는 해답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고민하게 되었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법학 외의 다른 학문을 함께 공부한 교수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린 로푸키(Lynn M. LoPucki)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상위 26개 로스쿨의 전임교원 가운데 약 29%가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14~2015년 신규 임용자 중에서는 67%가 법학박사(JD)와 다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저스틴 맥크레이리(Justin McCrary) 등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미국 로스쿨에서 법학 외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증가해 온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학위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법학교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문을 통해 법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연구 방식이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에는 이런 관점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과 유사한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어떤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정서 · 행동 · 인지가 변화한다면, 이러한 변화는 범죄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범인이 사이코패스라는 주장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범죄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타고났다는 이유로 선처해야 하는가, 아니면 잠재적 위험성을 높게 판단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가? 진술 분석에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신뢰할 수 있을까?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는 인간의 의사결정과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데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법학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다른 학문의 용어나 연구 결과를 단순히 법학에 가져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연구가 어떤 가설에서 출발했는지, 자료는 어떻게 수집했는지, 측정은 적절했는지, 다른 설명은 가능한지, 결과를 어디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다른 학문의 결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 결론이 만들어진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능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로스쿨에서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판례와 법리를 익히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많다. 하지만 법학은 다른 학문과 분리된 세계가 아니다. 법은 사람과 사회를 다루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새로운 기술과 과학이 등장할 때마다 법은 그 의미와 한계를 이해하고, 기존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한다.

내가 법학과 심리학을 함께 공부하며 얻은 가장 큰 수확은 두 분야의 지식을 단순히 더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의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고, 당연해 보이는 주장에도 근거를 묻는 습관이었다. 미연방대법관을 지낸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는 법을 이해하려면 논리뿐 아니라 경험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 법학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법과 제도 역시 사람과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고 작동하기 때문이다. 법을 깊이 이해하려면 법리와 논리를 익히는 데서 나아가, 그것이 현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로스쿨에서의 공부가 현재의 법리를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경험은 법학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법과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는 또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최이문

경찰대학교 교수.
미국 네브라스카 주립대학교에서 심리학 박사 및 법학 석사 공동 학위를 받았으며,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정 밖에선 나도 스타…

법조인 유튜버 TOP10

딱딱한 법률 이야기도 유튜브에서는 달라진다.
교통사고 영상을 분석하고, 어려운 판례를 쉽게 풀어주는 것은 기본. 공부법을 알려주거나 일상을 공개하고, 애니메이션과 음악까지 활용하는 법조인도 있다.
각자의 전문성과 개성을 무기로 구독자들과 만나고 있는 법조인 유튜버 10인을 구독자 수 순으로 소개한다.

※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법조인이 직접 운영·진행하는 채널을 대상으로 했으며, 정치활동 및 정치·시사평론을 주된 콘텐츠로 하는 채널과 기관·로펌 공식 채널은 제외했다. 구독자 수는 집계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한문철 TV



● **운영자:** 한문철 변호사 ● **구독자 수:** 185만
● **콘텐츠:** 교통사고·블랙박스·과실비율

법조인 유튜브의 '넘사벽' 1위. 블랙박스 영상 속 교통사고를 한문철 변호사가 직접 분석하고 과실비율과 법적 쟁점을 설명한다. "몇 대 몇?"이라는 질문 하나로 복잡한 교통사고 법률을 대중적인 콘텐츠로 만든 대표적인 법률 유튜브 채널이다.

2 아는 변호사



● **운영자:** 이지훈 변호사 ● **구독자 수:** 53.9만
● **콘텐츠:** 법률상담·결혼·이혼·인생상담

법률상담에서 시작해 결혼과 이혼, 인간관계와 인생 고민까지 다룬다. 법 조문을 설명하기보다 현실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변호사의 시선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 이름 그대로 '주변에 한 명쯤 있었으면 하는 아는 변호사'에 가깝다.

3 DreamSchool 이윤규



● **운영자:** 이윤규 변호사 ● **구독자 수:** 43만
● **콘텐츠:** 공부법·암기법·자기계발

법률 대신 '공부'를 선택한 변호사 유튜버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터득한 공부법과 암기법, 시간관리 노하우를 콘텐츠로 풀어내면서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인기를 얻었다. 법조인의 경험이 법률 콘텐츠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4 로이어프렌즈-변호사 친구들



● **운영자:** 손병구, 이경민 변호사 등 ● **구독자 수:** 21.6만
● **콘텐츠:** 생활법률·사건해설·변호사 이야기

'변호사도 이렇게 웃길 수 있다'를 보여주는 채널. 여러 변호사가 등장해 생활 속 법률 문제와 사건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낸다. 혼자 카메라를 바라보며 설명하는 전형적인 법률 유튜브와 달리 출연자들의 티키타카가 중요한 재미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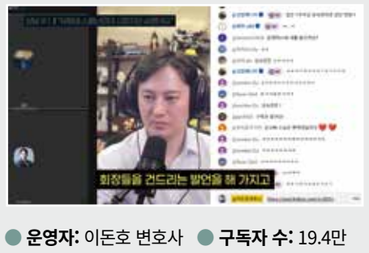
5 인생변호사



● **운영자:** 이고은, 배한진 변호사 ● **구독자 수:** 20.6만
● **콘텐츠:** 검사 출신 변호사의 형사법·사건해설

검사 출신 두 변호사가 형사사건과 각종 사회적 이슈를 법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실제 수사와 형사재판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수사 과정 등을 설명한다는 점이 강점. 뉴스에서 한 번쯤 궁금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있다.

6 이돈호 변호사



● **운영자:** 이돈호 변호사 ● **구독자 수:** 19.4만
● **콘텐츠:** 법률·사회 이슈 분석·상담·브이로그

사건 해설부터 법률상담, 변호사의 일상까지 콘텐츠의 폭이 넓다. 딱딱한 법률 지식 전달에만 머물지 않고 대중이 궁금해하는 사회 이슈를 빠르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유튜버의 친근함을 함께 보여주는 채널.

7 좋은변호사-남녀문제연구소[안변TV]



● **운영자:** 안세훈 변호사 ● **구독자 수:** 16만
● **콘텐츠:** 형사·성범죄·남녀관계 법률

연애와 남녀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성범죄와 형사사건처럼 어렵고 민감한 주제도 실제 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명확한 전문 분야를 내세워 구독자를 확보한 '특화형 법률 채널'이다.

8 꽉 변호사



● **운영자:** 김효겸 변호사 ● **구독자 수:** 14.3만
● **콘텐츠:**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생활법률

법률과 애니메이션의 만남. 어려운 법적 상황을 직접 그린 캐릭터와 이야기로 풀어내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부담 없이 볼 수 있게 만든다.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방법' 자체를 차별화했다는 점에서 눈에 띄는 채널이다.

9 차산선생 법률상식



● **운영자:** 박일환 전 대법관 ● **구독자 수:** 13.6만
● **콘텐츠:** 판례·생활법률·법조이야기

'전직 대법관이 유튜브를 한다면?'이라는 궁금증에 답해주는 채널. 박일환 전 대법관이 판례와 생활법률, 사법제도 등을 직접 설명한다. 오랜 법관 경험에서 나오는 설명 자체가 콘텐츠의 힘이라는 점이 다른 채널과 확연히 다르다.

10 킴변 KIMBY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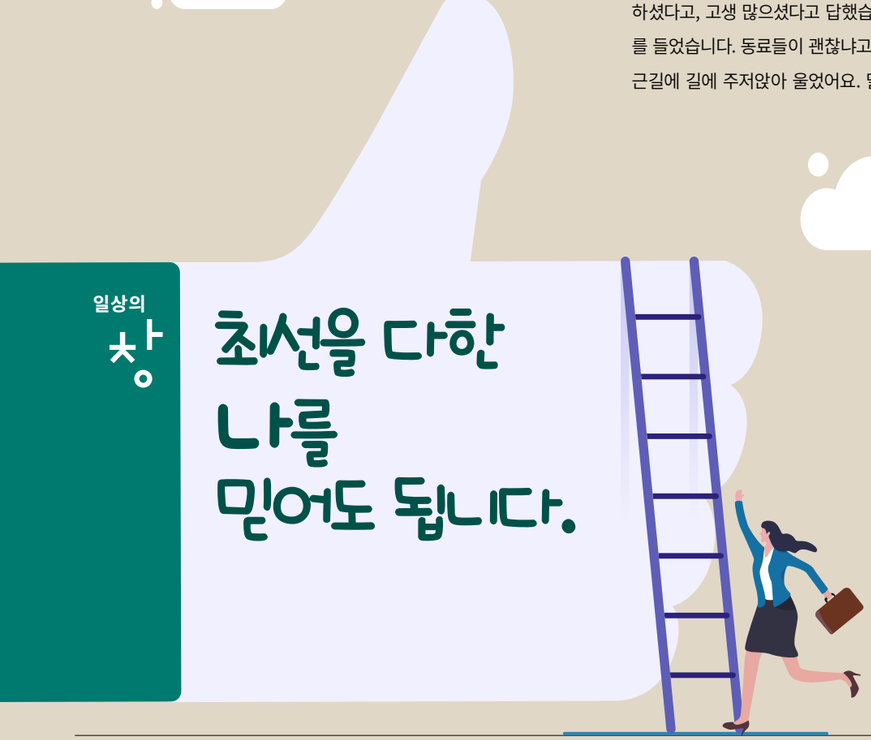


● **운영자:** 김지수 변호사 ● **구독자 수:** 12.9만
● **콘텐츠:** 변호사 일상·법률·음악·브이로그

법률만 이야기하지 않는 변호사 채널이다. 변호사의 일상과 브이로그부터 음악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문직 유튜버'의 또 다른 유형을 보여준다. 법정과 사무실 밖 법조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다.

일상의 창

최선을 다한 나를 믿어도 됩니다.





추은혜 변호사

현 법률사무소 더든든 대표변호사
현 심리상담소 은반 상담소장

저는 법학과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입학하고 한동안은 법전과 씨름했지요. 제가 로스쿨을 다니던 시절 법전은 한자투성이였는데, 저는 한자를 읽을 줄 몰랐거든요. 그날 공부를 어느 정도 마치고 슬슬 잠이 오면, 그래도 뭐라도 해야겠어서 밤 10시부터 새벽까지 한자 위에 한글을 적고, 소리 내어 읽고, 그 이미지를 통째로 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였지만, 그 시절의 저는 그렇게라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에게,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는 후배님들께 먼저 이 말을 건네고 싶습니다. 시험은 시험입니다. 결과로 이어지는 공부를 하세요. 로스쿨에 입학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변호사시험은 수험생활을 수험생답게 하는 것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합격한다, 그렇게 믿으셔도 됩니다. 대학 입시를 넘고, 로스쿨 입시를 넘고, 변호사시험까지 넘는다는 건 시험이라는 하나의 기준 앞에서 무언가를 해내보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은 직업에 대한 만족을 넘어 '뭐든 해낼 수 있다'는 삶의 자신감이 됩니다. 혹시 지금 학점 때문에 힘든 분이 있다면, 고백하자면 저는 로스쿨에서 꼴찌로 시작했습니다. 한 과목, 시험 하나에 목표 점수를 정하고 넘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높은 점수를, 그다음에는 다른 과목도 해낼 수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해 본 사람이 합니다. 큰 목표보다 작은 성공을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몇 줄이면 됩니다. 다만 그 짧은 말을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서, 대신 제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같은 이야기도 읽는 분마다 다르게 남을 테니까요.

변호사 3년차 무렵, 한 달 사이에 세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은 제 의뢰인이었고, 한 분은 상대방 당사자였습니다. 한 의뢰인은 판결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변호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잘한 것 맞지요?" 저는 정말 잘하셨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족을 통해 부고를 들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퇴근길에 길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달력에 겨울 휴정기까지 하루하루 X표를 치며 버텼고, 휴정기 2주 동안은 집에서 잠만 잤습니다. 몇 날 며칠 통화기록과 문자를 다시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자책했고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소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에게는 소송이라는 목표가 있어 견뎌오셨을 텐데, 그것이 끝나고 할 일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올수록 견디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당시의 저는 그 깊은 마음까지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상담 중에 눈물이 주체 없이 흐르거나 아직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버거워 보이는 분께는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니까요. 그 일을 겪고 처음으로 심리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은 보통 주 1회씩 꾸준히 받아야 한다는데, 저는 늘 직전에 일정을 바꾸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찾아가 1년에 10회를 채운 불량한 내담자였습니다. 첫 상담에서 저는 꽤 똑 부러지게 말했어요.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지지 않는다고, 이 경험이 훗날 제게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조리 있게 이야기하다가 20분을 울었습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말 중 이 말만은 오래 남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도움이 되고 경험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지금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결국 끝이 보이지 않겠냐고요. 선생님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 성향을 알아보시고 회기마다 책을 한 권씩 추천해 함께 읽자고 하셨고, 저는 그 열 권을 다 읽으며 그때까지 마주하지 못했던 제 안의 내면아이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부모님 아래에서 자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도 처음이고, 미숙한 한 인간이니까요. 저 역시 아이를 낳아보니 자식이란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겠는데, 그 마음을 매 순간 성숙하게 표현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제는 압니다. 그건 부모님의 몫이고, 저는 저로 존재한다는 것을요. 상담을 받고 상담을 공부한 경험이 저를 그 인식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깊이 애정하게 되었고, 변호사 일을 하면서 상담대학원에 진학해 상담사 자격을 갖추었고, 지금은 전문 상담 선생님을 모시고 모든 의뢰인에게 심리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의뢰인을 잃고 싶지 않다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의미나 이유를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로스쿨까지 온 분들이라면 대부분 어려서부터 착한 딸, 아들이었을 거예요. 공부를 잘했을 것이고, 실망보다는 기쁨이 되는 존재였을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늘 극복해내며, 인생의 관문을 하나씩 통과하듯 살아온 분들이지요.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면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는 일도 많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예요. 나만은 나로서 온전히 존재하는 것. 각박한 세상에서 최소한 나는 내 편이어야 합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비난하거든, 속으로라도 시원하게 받아칠 줄 아는 배짱도 가지시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호사는 평생 평가받는 직업입니다. 의뢰인이 없으면 대리인인 변호사는 존재할 수 없으니, 어떻게 선택받을지, 어떻게 설득하는 글을 쓸지를 평생 고민합니다. 저는 서면 하나를 제출할 때도 미리 의뢰인께 보내 빨간펜 첨삭을 받습니다. 시간이 급해 미리 검토를 받지 못했다면 이후에라도 의뢰인 의견을 들어 다음 서면에 반영하고요. 학벌과 성적은 취업 초기 1년 정도 중요할 뿐, 그 후에는 성실하게 자기 일에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변호사로 성장합니다. 전문 분야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1~2년차에 가장 많이 만나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전문이 되고, 그 일이 재미있다면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변호사는 평생 하는 일이라 기회는 얼마든지 옵니다. 저도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비판을 듣기도 하고, 징계 진정을 당해 억울하고 해명하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반성하고 사과하면 그만이니까요.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한 나에게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곁에 있어주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서지 않으면 타인의 삶을 돌볼 수 없습니다. 시험은 시험답게 준비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를 알아가시고, 최선을 다한 나를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합격할 것이고, 이 좋은 직업의 보람은 그 뒤에 충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우리 집 막둥이 "꼬미"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막둥이 〈꼬미〉를 소개합니다!(멍멍)

생년월일은 2025년 9월 12일인지라, 갓 돌이 지났답니다. ㅎㅎ

우리 꼬미는 실버 토이푸들입니다.

소녀시대 태연님이랑 효연님이 키우는 강아지랑

같은 품종이라네요!



태어난 직후에 우리 꼬미는 쿠앤크 강아지였는데요.(검정색과 흰색이 교차된 색깔이었습니다!)

자라면서 은색 빛깔 강아지가 되었답니다.

토이푸들이라서 그런지 진짜 조그마하답니다. 3kg도 되지 않아서 한 손으로 들고 다녀요.



우리 꼬미는 ENFP 강아지의 전형인데요.

처음 본 사람이든, 강아지든, 낯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답니다!

누구든 저희집 예쁜 꼬미를 보면, 첫눈에 반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말씀에 따르면, 산책할 때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꼬미를 보지 않고 지나가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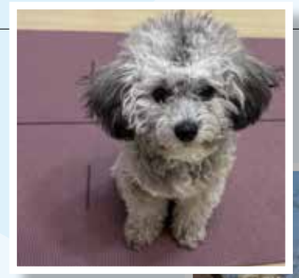
'끙'하는 소리를 내고 눈길을 끈 다음에

귀여운 손바닥을 내민다고 하네요.

평일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난 뒤,

금요일 밤에 집에 가서 꼬미의 젤리 손을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피로감이 말끔히 사라진답니다.





꼬미는 집에 돌아올 때마다 꼬리를 엄청나게 흔들며

가족 구성원들과 손님들을 반기곤 하는데요.

평일 동안은 학교 근처 고시원에서 묵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만 해도 보고 싶네요.

아! 저희집 꼬미에게는 인스타 계정도 있는데요.

꼬미의 일상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ggomi_thepuppy 팔로우 해주세요!





강아지 만세! 우리 집 막둥이 만세!

지금까지 우리집 꼬미 소개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6기

제18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 **참가신청기간** : 2026. 10. 19.(월) ~ 10. 28.(수)
- **본선변론기일** : 2027. 1. 19.(화) 오전
- **결선변론기일** : 2027. 1. 19.(화) 오후
- **참가자격** :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같은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3인 1팀)
- **경연분야** : 민사재판, 형사재판
- **참가방법** : 참가신청 기간 중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문 의 처** : 경연대회 집행위원회(031-920-3459)



제6회 율촌·온율 기초법학 논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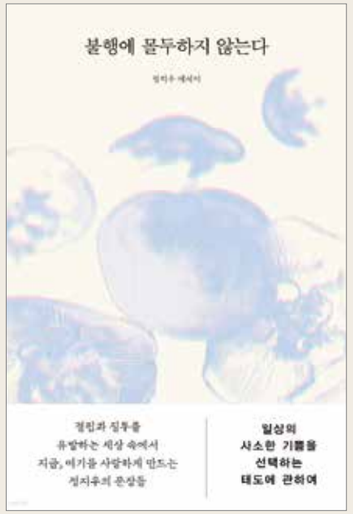
- **공모 논문** :
  - 기초법학(법사학, 법사회학, 법철학, 젠더법학 등)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룬 개인 단독저술 연구논문
  - 출판되지 않은 신규 작성 논문(전문석사학위 논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실적 심사물 응모 가능)
- **응모자격** :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법학 관련 전공 대학원생 등
- **논문 제출 기간** : 2026. 10. 26.(월) ~ 11. 11.(수)
- **심사 결과 발표** : 2027. 1월 중
- **제출양식** : 서울법대 홈페이지 내 공고문 참고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시상 및 상금** : 대상 1편 상금 300만원, 우수상 2편 상금 각 100만원
- **문의처**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이론연구센터(02-880-86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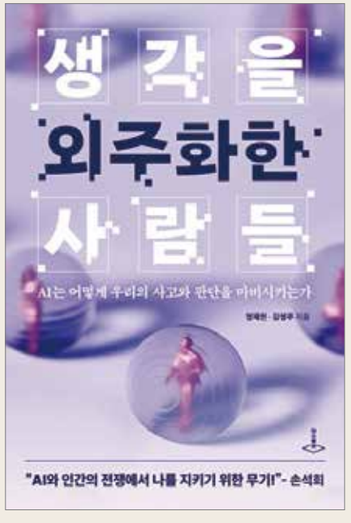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

행복은 모든 불행이 사라진 뒤에야 찾아오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비교와 경쟁, 불안과 결핍이 일상이 된 시대에 정지우의 '불행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시선을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로 돌린다. 불행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눈앞의 작은 행복을 충분히 누리는 것, 저자는 그것이 좋은 삶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변호사이자 작가인 저자는 더 나은 어딘가를 위해 오늘을 미루기보다,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살아가는 법을 담담히 전한다.

저 자	정지우
출 판 사	페이지2북스, 272쪽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



AI가 대신 답해주고, 알고리즘이 취향까지 추천하는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기술과 자원을 누리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문해력과 사고력, 집중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 고민하고 연결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건너뛴 채 곧바로 답을 찾는 데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생각을 외주화한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의 진짜 위기는 집중력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는 힘의 상실이라고 비판한다.

저 자	정재민, 김영주
출 판 사	더스퀘어, 354쪽

강원대학교
http://law.kangwon.ac.kr

건국대학교
http://lawschool.konkuk.ac.kr

경북대학교
http://lawschool.knu.ac.kr

경희대학교
http://law.khu.ac.kr

고려대학교
http://kulawschool.korea.ac.kr

동아대학교
http://law.donga.ac.kr

부산대학교
http://law.pusan.ac.kr

서강대학교
http://lawschool.sogang.ac.kr

서울대학교
http://law.snu.ac.kr

서울시립대학교
http://lawschool.uos.ac.kr

성균관대학교
http://sls.skku.edu

아주대학교
http://lawschool.ajou.ac.kr

연세대학교
http://lawschool.yonsei.ac.kr

영남대학교
https://lawschool.yu.ac.kr

원광대학교
https://lawschool.wku.ac.kr

이화여자대학교
http://lawschool.ewha.ac.kr

인하대학교
http://ils.inha.ac.kr

전남대학교
http://lawschool.jnu.ac.kr

전북대학교
https://lawschool.jbnu.ac.kr

제주대학교
https://lawschool.jejunu.ac.kr

중앙대학교
http://lawschool.cau.ac.kr

충남대학교
http://law.cnu.ac.kr

충북대학교
https://lawschool.chungbuk.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law.hufs.ac.kr

한양대학교
http://lawschool.hanyang.ac.kr

법학전문대학원은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합니다.

AKLS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Law Schools